



사회 >> 3면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

기획 >> 4면  
제22대 총선, "이것만은 꼭 알고 가!"

현장르포 >> 5면  
늘릴까 말까 고무줄 의대 정원, 교통은 남은 사람들의 몫

제578호  
2024년 4월 19일(금)

## 2024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어떤 안건들 오겠나

중앙감사위원회 신설부터 셔틀버스 운행 가능성, 와이파이 AP 설치까지



지난 3월 25일, 문예관 문예홀에서 2024학년도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본 회의는 단과대학 및 자치기구 회장단을 비롯한 학년별 과 대표들까지 대의원 총 226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인준안

건 ▲중앙감사위원회 인준 ▲예결산 보고 ▲활동보고 ▲공약보고 ▲총학생회 회칙개정 ▲사전질문 ▲기타 및 건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국장 인준 절차가 있었다. 이후 '중앙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한 인준을 진행했다. 중앙감사위원회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 자치기구 및 단체의 재정 감사를 담당한다. 재석 의원 226명 중 찬성 214표, 반대 12표로 인준 안건이 가결됐으며, 내년부터 정식 독립기구로 실행될 예정이다. 예결산 보고에서는 총학생회와 총동아리연합회 주관 행사, 2024학년도 대동제, 확대간부 수련회, 선거 등

에서 사용될 예산안과 총학생회비, 학위 수여식, 신입생 문화제에서 사용된 결산안 내역 보고가 이뤄졌다. 활동 보고에서는 지난 2월 진행된 학위수여식 참여율과 신입생 문화제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을 보고했다. 이어 사물함 대여 사업 결과 보고 후, 증설 요구 급증으로 인한 사물함 추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약 보고로는 첫째, 학교 주변 상권 제후를 위해 학교 인근 약 30개의 식당과 제후를 맺었으며, 정릉골 및 정릉시장 상인회와의 미팅 후 제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학우들의 식당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교와의 지속적인 논의 끝에 청운관과 북악관 내 휴게 및 식사 공간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한림관 학식당 또한 학생 선호에 맞는 방향으로 구성해 갈 것을 약속했다. 홍보단 신설에 대해서는 캠퍼스 팀, 미디어 홍보팀으로 나눠 구상 중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밝혔다. 생활관 환경의 경우 방학부터 세탁기, 고압세척과 더불어 여자 생활관에 전자레인지 추가 설치하는 등 상당 부분 개선했음을 알렸다. 시설물 및 건의 사항 창구 개선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전체 취합 후 학교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시설물 건의안의 경우 꼭 사진을 함께 첨부할 것을 안내했다. 사전질문에 대한 주요 답변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셔틀버스 운행 가능성에 대해, 학교 측으로부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혼잡 시간대 약 2~30분을 제외한 탑승 인원이 매우 저조해 셔틀버스를 등교 시간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어 운영이 중단됐음을 발표했다. 학점 포기 제도의 경우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폐지된 강의에 한해서는 6학점까지 가능하다. 학교 와이파이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강의실 AP 설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건의 사항 관련 질의응답 이후 회의를 마쳤다. 부총학생회장 서재원(급비 19) 학우는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우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남은 기간 한숲 총학생회가 서경대 학우들을 '하나의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단과대 통폐합' 추진에 "황당"... 한숲 총학생회, 긴급 전학대회 소집



제52대 한숲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1일 19시, 서경대학교 분관 컨벤션홀에서 긴급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소집했다. 긴급 전학대회는 '자율전공입학 및 무전공입학'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총학생회는 브리핑을 통해 '전공자율 선택제'와 긴급 전학대회 개최 경위를 알렸다. 이후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가 이어졌다. 전학대회에는 학생처장인 함형준 금융정보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학대회는 21시를 넘긴 뒤에야 종료됐다. 한편 교육부는 연초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선발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무전공 입학 비율을 약 55%로 산정해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9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사전 공고하며 4월 17일 12시까지 검토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들은 제22대 총선과 예비군 훈련을 앞둔 시점에 공정한 점과 일방적인 통보에 강력히 반발했다. 긴급 전학대회 후에도 모호한 학교 측의 답변에 학생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을 제기했다. 총학생회를 비롯해 단과대 학생회장단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대 운동을 예고했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 꽃은 날씨 속에서도 피어나는 웃음... '동아리 알림제', '해오름제' 개최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40대 '서로'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가 주최한 '동아리 알림제'가 진행됐다. 모든 부스가 새로운 동아리원을 맞이하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번 동아리 알림제를 위해 총동연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5개의 동아리 부스 중 5곳 이상 체험하고 도장을 받아 총동연 본부 추천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와 28일 목요일에는 총동연 부스에 서경 포탈 혹은 학생증을 제시하면 생맥주를 무

료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총동연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와 동아리 알림제 관련 스토리 업로드 시 커피 쿠폰을 주는 '인스타 팔로우', 스토리 이벤트'와 중점 퀴즈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를 펼쳤다. 부스를 운영하는 15개의 동아리도, 각자 동아리만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부스 체험들로 학우들의 발길을 끌었다. 첫날에는 동아리 부스만 운영된 것과 달리, 둘째 날인 28일에는 1시부터 다양한 동아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 부슬비가 내리



는 꽃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하는 학우들과 이를 지켜보는 학우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최선을 다해 즐기며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학우들이 지나가던 학우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춰 공연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우산을 들고 공연을 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즐겁게 공연에 호응하는 학우들의 응원 소리에 힘입어 모든 공연 동아리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이틀간의 동아리 알림제가 모두 끝난 후 18시부터는 '해오름제'가 진행됐다. 총학생회, 인문대, 사과대, 이공대, 예술대, 총동연, 신문사의 각 회장단과 부원들이 스폰스커에 모였다. 무대 위엔 제사를 위한 돼지머리와 과일, 떡과 술 등이 차려졌다.

총학생회장 김종후(컴공 21) 학우는 서경대학교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올해의 건승을 빌었다. 총학을 필두로 각 회장단은 차례대로 무대 위에 올라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다.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송유진(아동 21) 학우는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무대 진행이 어려운 꽃은 날씨, 대일 외고의 3월 모의고사 등 약조건들이 많았지만 무사히 동아리 알림제를 마친 것에 대한 안도와 감사를 표했다. 해오름제가 끝난 후 총학과 총동연은 사발식을 진행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사 령

#### 4월 19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수습기자 임지훈 (경영 21)
- ▶ 임 수습기자 강예진 (광공 22)
- ▶ 임 수습기자 박상현 (전컴 23)
- ▶ 임 수습기자 신가은 (경영 23)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빠른 길,  
모두 투표합시다!

#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을 눈여겨보자!

### ‘2024년 입주경진대회’, ‘성북 캠퍼스타운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펼쳐...

서경대의 우수한 문화예술 특성 인프라 및 역량을 활용해 동북권 제1의 ‘기술융합 K-컬처 창업타운’ 조성을 목표로 한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친다. 캠퍼스타운은 청년에게 창업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대학 지역을 활성화하는 등 대학, 청년,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이다.

본교 캠퍼스타운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양한 분야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창업인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년 입주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총 60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인 이번 입주경진대회는 현재 서류·발표 심사가 진행 중이며, 4월 19일에 합격자 선발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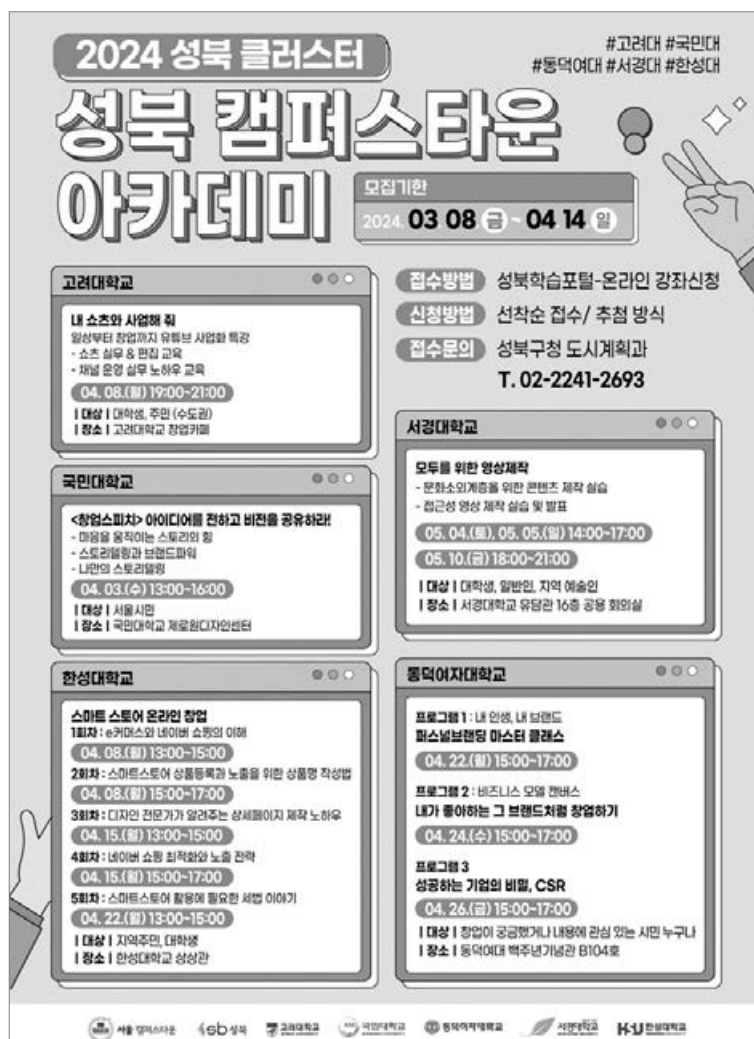
그 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약 및 사업화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화 지원에는 상위 5팀 대 회 시상금 최대 200만원, 팀별 창업 지원금 최대 2천만원, 교내 사무공간 무상 지원을 비롯하여 창업 교육,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시장분석과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 다양한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성북 캠퍼스타운 아카데미(1학기)이하 아카데미’가 있다. 아카데미는 성북 캠퍼스타운 구축 및 지역 문화예술 향유 대상 확대, 창업팀 발굴 등 지역-자치구-대학 간 연계성 확보와 지역 상생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한다. 더불어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업 의지도 북돋고자 한다. 본

교 아카데미 강좌로는 ‘모두를 위한 영상 제작’이 개설될 예정이다.

4월 14일(일) 17시까지 대학생, 일반인,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수강생 10명 내외를 모집했다. 신청자는 5/4(토), 5/5(일) 14~17시, 5/10(금) 18~21시 총 3회로 이루어진 강좌 일정에 모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주요 혜택으로는 3회 무료 수강 및 성북 캠퍼스타운 강좌 수료증 수여,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이 있다. 아카데미 강좌 접수는 성북학습포털 속 ‘온라인 강좌 신청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장 이철민)은 “지역 내 우수한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2024 성북 캠퍼스타운 아카데미**  
모집기간: 2024. 03. 08 (일) ~ 04. 14 (일)

<b>고려대학교</b> 대상: 1 대학, 2 대학, 3 대학, 4 대학, 5 대학, 6 대학, 7 대학, 8 대학, 9 대학, 10 대학, 11 대학, 12 대학, 13 대학, 14 대학, 15 대학, 16 대학, 17 대학, 18 대학, 19 대학, 20 대학, 21 대학, 22 대학, 23 대학, 24 대학, 25 대학, 26 대학, 27 대학, 28 대학, 29 대학, 30 대학, 31 대학, 32 대학, 33 대학, 34 대학, 35 대학, 36 대학, 37 대학, 38 대학, 39 대학, 40 대학, 41 대학, 42 대학, 43 대학, 44 대학, 45 대학, 46 대학, 47 대학, 48 대학, 49 대학, 50 대학, 51 대학, 52 대학, 53 대학, 54 대학, 55 대학, 56 대학, 57 대학, 58 대학, 59 대학, 60 대학, 61 대학, 62 대학, 63 대학, 64 대학, 65 대학, 66 대학, 67 대학, 68 대학, 69 대학, 70 대학, 71 대학, 72 대학, 73 대학, 74 대학, 75 대학, 76 대학, 77 대학, 78 대학, 79 대학, 80 대학, 81 대학, 82 대학, 83 대학, 84 대학, 85 대학, 86 대학, 87 대학, 88 대학, 89 대학, 90 대학, 91 대학, 92 대학, 93 대학, 94 대학, 95 대학, 96 대학, 97 대학, 98 대학, 99 대학, 100 대학	<b>성북학습포털-온라인 강좌신청</b>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추첨 방식 접수문의: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T. 02-2241-2693
<b>국민대학교</b> 대상: 1 대학, 2 대학, 3 대학, 4 대학, 5 대학, 6 대학, 7 대학, 8 대학, 9 대학, 10 대학, 11 대학, 12 대학, 13 대학, 14 대학, 15 대학, 16 대학, 17 대학, 18 대학, 19 대학, 20 대학, 21 대학, 22 대학, 23 대학, 24 대학, 25 대학, 26 대학, 27 대학, 28 대학, 29 대학, 30 대학, 31 대학, 32 대학, 33 대학, 34 대학, 35 대학, 36 대학, 37 대학, 38 대학, 39 대학, 40 대학, 41 대학, 42 대학, 43 대학, 44 대학, 45 대학, 46 대학, 47 대학, 48 대학, 49 대학, 50 대학, 51 대학, 52 대학, 53 대학, 54 대학, 55 대학, 56 대학, 57 대학, 58 대학, 59 대학, 60 대학, 61 대학, 62 대학, 63 대학, 64 대학, 65 대학, 66 대학, 67 대학, 68 대학, 69 대학, 70 대학, 71 대학, 72 대학, 73 대학, 74 대학, 75 대학, 76 대학, 77 대학, 78 대학, 79 대학, 80 대학, 81 대학, 82 대학, 83 대학, 84 대학, 85 대학, 86 대학, 87 대학, 88 대학, 89 대학, 90 대학, 91 대학, 92 대학, 93 대학, 94 대학, 95 대학, 96 대학, 97 대학, 98 대학, 99 대학, 100 대학	<b>성북학습포털-온라인 강좌신청</b>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추첨 방식 접수문의: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T. 02-2241-2693
<b>한성대학교</b> 대상: 1 대학, 2 대학, 3 대학, 4 대학, 5 대학, 6 대학, 7 대학, 8 대학, 9 대학, 10 대학, 11 대학, 12 대학, 13 대학, 14 대학, 15 대학, 16 대학, 17 대학, 18 대학, 19 대학, 20 대학, 21 대학, 22 대학, 23 대학, 24 대학, 25 대학, 26 대학, 27 대학, 28 대학, 29 대학, 30 대학, 31 대학, 32 대학, 33 대학, 34 대학, 35 대학, 36 대학, 37 대학, 38 대학, 39 대학, 40 대학, 41 대학, 42 대학, 43 대학, 44 대학, 45 대학, 46 대학, 47 대학, 48 대학, 49 대학, 50 대학, 51 대학, 52 대학, 53 대학, 54 대학, 55 대학, 56 대학, 57 대학, 58 대학, 59 대학, 60 대학, 61 대학, 62 대학, 63 대학, 64 대학, 65 대학, 66 대학, 67 대학, 68 대학, 69 대학, 70 대학, 71 대학, 72 대학, 73 대학, 74 대학, 75 대학, 76 대학, 77 대학, 78 대학, 79 대학, 80 대학, 81 대학, 82 대학, 83 대학, 84 대학, 85 대학, 86 대학, 87 대학, 88 대학, 89 대학, 90 대학, 91 대학, 92 대학, 93 대학, 94 대학, 95 대학, 96 대학, 97 대학, 98 대학, 99 대학, 100 대학	<b>성북학습포털-온라인 강좌신청</b>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추첨 방식 접수문의: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T. 02-2241-2693
<b>동덕여자대학교</b> 대상: 1 대학, 2 대학, 3 대학, 4 대학, 5 대학, 6 대학, 7 대학, 8 대학, 9 대학, 10 대학, 11 대학, 12 대학, 13 대학, 14 대학, 15 대학, 16 대학, 17 대학, 18 대학, 19 대학, 20 대학, 21 대학, 22 대학, 23 대학, 24 대학, 25 대학, 26 대학, 27 대학, 28 대학, 29 대학, 30 대학, 31 대학, 32 대학, 33 대학, 34 대학, 35 대학, 36 대학, 37 대학, 38 대학, 39 대학, 40 대학, 41 대학, 42 대학, 43 대학, 44 대학, 45 대학, 46 대학, 47 대학, 48 대학, 49 대학, 50 대학, 51 대학, 52 대학, 53 대학, 54 대학, 55 대학, 56 대학, 57 대학, 58 대학, 59 대학, 60 대학, 61 대학, 62 대학, 63 대학, 64 대학, 65 대학, 66 대학, 67 대학, 68 대학, 69 대학, 70 대학, 71 대학, 72 대학, 73 대학, 74 대학, 75 대학, 76 대학, 77 대학, 78 대학, 79 대학, 80 대학, 81 대학, 82 대학, 83 대학, 84 대학, 85 대학, 86 대학, 87 대학, 88 대학, 89 대학, 90 대학, 91 대학, 92 대학, 93 대학, 94 대학, 95 대학, 96 대학, 97 대학, 98 대학, 99 대학, 100 대학	<b>성북학습포털-온라인 강좌신청</b>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추첨 방식 접수문의: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T. 02-2241-2693

▲ 출처: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의 강점을 살려 지역 주민, 상인, 예술인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창업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서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유치로 5년간 지원받는다



▲ 출처: 캠퍼스타운 홈페이지

지난 2월 22일, 서경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의 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선협상 대학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원으로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대학일자리센터 사업과 유사하나 서비스 대상이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및 지역 청년까지 확대되며 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에 해당하고 취업 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중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된 대학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다. 현재 100개에 가까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센터 수를 늘려가는 추세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경대학교도 우선협상 대학 선정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3억 원가량의 예산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지원 내용은 거점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서경대학교는 일반형 운영 대학으로, ▲재학생, 졸업생, 지역 청년 대상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심리 전문상담 연계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 ▲청년고용정책 협력 ▲특화 프로그램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대학 체제 개편을 실시한 서경대학교 입장에서 해당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학협력은 교육의 성과와 산업경영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서경대학교는 개편 체제에 맞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사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뿐만 아니라 창의형 융합인재 양성 교육을 통한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예정이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 학생상담센터 ‘나만의 감정 향수 만들기’ 인기 폭발... 모집 인원 대폭 늘려



지난 3월 29일, 서경대학교 유담관 6층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나만의 감정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상담센터와 생명의전화중합 사회복지관이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안내 시 본교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했으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 모집 인원을 7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나누며 그 감정을 후각적으로 구체화했다. 프로그램은 향기롭게 느껴지는 향을 찾아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감정 향수’를 통해 자기 이해를 증진하고, 스트레스 인식 및 조절 능력을 향상하고자 기획됐다.

이례적으로 모집 인원을 증원한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 등산은 이제 그만! 서경대, ‘천원의 아침밥’ 북악관 GS25로 운영 확대



**천원의 아침밥**

운영일정: 2024. 03. 04(월) ~ 2024. 11. 29(금)  
\*토, 일, 공휴일, 방학 제외,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운영시간: 오전 7시 30분 부터 200개 소진까지

운영장소: 청운관 1층 이마트24 편의점

이용방법: 청운관 1층 이마트24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직접 계산

▲ 출처: 한송총학생회

서경대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천원의 아침밥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 운영에 북악

관에 들어선 편의점 GS25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

성과 식비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경대는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방학을 제외한 평일에 7시 30분부터 단돈 천 원에 식사를 제공한다.

기존 사업은 청운관 1층 편의점 이마트24에서 도시락 2종이 제공됐으나, GS25 서경대북악관점으로 운영이 확대되며 도시락의 종류 또한 다양해졌다. GS25는 요일별로 2종씩, 한 주에 총 10종의 도시락을 선보일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점포당 일일 약 100개 수량과 인당 1개로 구매가 제한되며 청운관 1층 내 좌석 및 북악관 지하 1층 좌석에서 자유롭게 취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천원의 아침밥 운영 장소가 추가되고 메뉴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 “연극 보러 오세요”

##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2024학년도 1학기 공연 라인업 공개

서경대학교 기획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정기·워크샵 공연 라인업이 공개됐다. 오는 6월까지 본교 북악관에서 공연을 펼친다.

지난 4월 4일, 본교 북악관 8층 북악홀에서는 2024년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정기공연인 연극 ‘작은 아씨들’이 무대에 올랐다. 연극 ‘작은 아씨들’은 예매 사이트가 열린 지 단 4시간 만에 전 좌석 매진됐다.

공연 당일, 관객들의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공연 직전까지 관객들은 공연장 입구를 에워쌌다. 관객들의 환호와 힘찬 박수로 연극의 막이 올랐다. 단란한 가정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사랑스러운 연기에 관객들은 열띤 호응으로 화답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연극 ‘작은 아씨들’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북악관 8층 북악홀에서 공연하며 정기·워크샵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추후 예정된 공연은 다음과 같다. ◆연극 ‘오해’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북악관 8층 810스튜디오에서 공연을 선보인

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 북악관 8층 810스튜디오 무대에 선다. ◆연극 ‘나생문’은 6월 초, 북악관 8층 북악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모든 공연은 평일 19시, 주말 16시에 시작되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서경대학교 기획팀 인스타그램(@sku\_planni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후 공연별로 안내 사항이 공지될 예정이며, 공연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공연 예매는 서경대학교 기획팀 인스타그램 상단 링크에 접속하면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일반예매가 가능하다.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 공연은 1인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도 예매가 가능하지만 현장 예매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정기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노소 적발 시 추후 공연 예매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티켓 취소 및 변경 시 네이버 이메일을 통해 예매자 본인이 직접 수정해야 하며, 사이트 내 명시된 주의 사항을 필독 후 예매해야 한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 한 눈에 보는 이슈

## 정치

공천 갈등으로 파국 맞이한 민주당... 흔들리는 거대 양당과 떠오르는 제3지대

## 경제

“취업보단 알바할래요”... 증가하는 프리터족

## 사회

딸이야, 아들이야? 지켜지지 못했던 부모의 알 권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결정

## 문화

트위치 철수로 불붙은 망 사용료 논쟁, 타국 대비 10배 높은 한국?

## 연예

“모를 리 없어” vs “허위사실”... 끊이지 않는 연예인 ‘학폭’ 논란

## 스포츠

박지연에 ‘고의 충돌’ 빛은 황대헌, 쇼트트랙 국가대표 탈락

자세히 보는 이슈

# 공천 갈등으로 파국 맞이한 민주당... 흔들리는 거대 양당과 떠오르는 제3지대



▲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를 두고 친이재명계(이하 친명계)의 '비주류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2년 대선 캠프 출신 의원들, '성남, 경기 라인' 인사들, 그리고 일명 '대장동 변호사'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을 꺾으며 본선에 올랐기 때문이다. 공천 과정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통해 여러 의혹과 혐의가 드러난 친명계 후보들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천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류로 자리매김한 친명계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세력의 갈등이 고조된 끝에 결국 주요 인사들의 연속적인 탈당 및 신당 창당의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극렬히 반발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새로운미래'를 창당했으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나무당'을 옥중 창당했다. 조국을 주축으로 한 친문계인 '조국혁신당'을 창당했다. 약 9만 명의 민주당 분당이 뒤따랐다.

국민회의는 이미 윤석열-이준석 합당을 발미로 지난해 한 번 분당된 바 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 대표를 중심으로 촉발된 비례대표 공천 논란에 이철규 의원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는 등 단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갈등이 비단 공천 갈등뿐만 아니라 한동훈계와 기존 주류의 싸움으로도 해석되고 있어 더 큰 갈등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의당 또한 당의 미래 방향성을 놓고 갈등한 끝에 여러 계파로 분당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계의 흐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당, 특히 거대 양당의 갈등과 세력 분화가 비슷한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정치계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분열과 갈등이 난무하는 정치계에서 제3지대가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3지대는 여당과 야당으로 국가 권력이 양분된 상태에서 두 세력에게 대항하는 정치 세력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거대 양당의 분열과 맞물려 제3지대에 새로운 세력들이 생겨나며, 성향이 유사한 세력 간의 활발한 연대 및 통합을 단행하고 있다. 대두되는 제3지대 중심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미래가 자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과 신경전을 펼칠 정도로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은 제3지대를 가열하게 주장해 온 새로운선택과 합당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천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합류로 세를 키우고 있는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총선을 대비해 합당을 논의하기도 했으나 지속된 갈등 끝에 합당을 파기했다. 그러나 재결합의 여지를 보인 만큼 이들의 연대 및 합당의 유무, 더 나아가 활발해진 제3지대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취업보단 알바할래요”... 증가하는 프리터족



▲ 출처: 한경매거진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이 늘고 있다. 프리터족은 자유롭다는 뜻의 '프리(Free)'와 독일어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하는 '아르바이터(Arbeiter)'의 합성어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 뒤 일본에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청년들이 많이 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이들은 정규직 이외의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로 생계를 유지한다. 프리터족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얻을 정도로만 일하며, 그 외의 시간은 취미생활 등에 몰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즐기는 삶을 추구하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한다. 따라서 쉽게 일자리를 바꾸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도 프리터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국내 파트타임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비중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5년간 4.2%포인트 늘었다.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2.2%, 2019년 14.0%, 2020년 15.4%, 2021년 16.1%, 2022년 16.4%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는 경향과 함께 나타났다. 직장에 얽매기보다는 임금이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 어학 점수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스펙을 준비한다. 그러나 경기 둔화로 신입 공채 규모가 줄어들며

취업난이 심각해지자 어쩔 수 없이 프리터족을 택하게 된 경우도 늘었다. 한편 프리터족 증가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이전에 프리터족이 유행한 일본의 경우, 20대를 중심으로 한 프리터족이 그대로 장년화 되면서 중장년 빈곤, 고독사 등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프리터족이 증가하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고급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1살 대학생 김유정씨는 “30대 프리터족들과 일하고 있는데 업무에 얽매지 않는 현재의 삶에 만족해한다. 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동에 가깝기에 일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감이 없어 스트레스도 적을 것이다. 오직 본인의 삶에 집중하며,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 순 있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며 즐겁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 딸이야, 아들이야? 지켜지지 못했던 부모의 알 권리...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위한 결정

이제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의료법 제20조 2항(이하 현행 의료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의료인이 언제든지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헌법소원심판 사건 청구인들은 현행 의료법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오늘 날 낙태는 태아의 성별 고지와는 관계없는 사유로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라며 “실질적으로 낙태 불가능한 임신 32주 후에만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게 하고 있어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연합뉴스

현재는 현행 의료법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라 현재는 태아의 성별 인지와 낙태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위헌을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세 재판관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로 인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 등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를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태아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해 침해할 최소

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6명의 재판관(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낙태 행위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또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성별을 비롯한 태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의 마땅한 기본권. (현행 의료법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말했다. 태아 성별 고지가 불법이었을 당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트위치 철수로 불붙은 망 사용료 논쟁, 타국 대비 10배 높은 한국?

지난 2월 28일, 아마존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트위치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더 비싸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며 망 사용료 논쟁에 불을 붙였다. 망 사용료는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 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이다. [출처: 매일경제] 트위치 CEO 댄 클랜시는 개인방송을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가 부담되어 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20p로 화질 제한, P2P(클라이언트 컴퓨터끼리의 직접 통신 방식) 모델을 통한 테스트 등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한국 사용자가 많이 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실제 망 사용료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망 이용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NDA)가 들어가 있기에 정확한 가격은 제삼자가 알 수 없고, 결국 서로 근거 없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꼴이었다. 명확한 망 사용료 가격이 공개되지 않자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기존 5G 과대광고 논란, 이통 3사 독점 구조, 담합 의혹으로 소비자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망 사용료 논란까지 겹치며 이동통신사가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 사용료부터 통신비까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반응은 계속 싸울 것으로 보인다.



▲ 출처: SBS 뉴스

망 이용대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제2회 통신산업·스튜디오 데이를 개최했다. KTOA는 “한국이 망 사용료가 유독 높다는 트위치 측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고, 트위치의 경영실황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실제 망 사용료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망 이용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NDA)가 들어가 있기에 정확한 가격은 제삼자가 알 수 없고, 결국 서로 근거 없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꼴이었다. 명확한 망 사용료 가격이 공개되지 않자 통신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기존 5G 과대광고 논란, 이통 3사 독점 구조, 담합 의혹으로 소비자불만이 쌓여 있던 상황에서 망 사용료 논란까지 겹치며 이동통신사가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망 사용료부터 통신비까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반응은 계속 싸울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1일, '2024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의 망 이용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역시 망 사용료 논쟁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망 사용료는 비단 인터넷 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OTT나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이슈다. 정말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보다 현저히 높다면,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꺼리게 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다. 국내 콘텐츠 발전을 위해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콘텐츠 수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 소중한 한표가 세상을 바꾼다! 제22대 총선, “이것만은 꼭 알고 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본지는 총선 전에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기사를 작성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행이 늦춰졌다. 이에 총선 당일, 본 기획의 의도를 살려 '서경대신문 578호 미리 보기'라는 이름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총선 투표를 독려하고자 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끝난 이후로도 가타부타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초박빙의

접전이 벌어진 지역구가 많았다. 새벽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결을 펼치며 승패를 정할 수 없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과 비례대표 24석 등 총 185석을 얻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을 합한 범야권 의석수는 187석을 달성했다. 이를 두고 '야당 압승, 여당 참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깊었던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사전투표는 지난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지난 4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결과 "이번 총선 유권자 4,428만 11명 가운데 2,966만 2,313명이 투표해 67.0%의 투표율이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와 거소·선상·재외투표가 반영된 수치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연령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공개했다. 사전투표를 한 1384만9043명 가운데 20대가 12.9%를 차지하며, 가장 투표 비중이 낮은 연령대를 차지한 30대(11.3%) 다음으로 투표 비중이 낮은 연령대를 기록했다. 아직도 왜 투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본 기획을 통해 왜 투표해야 하는지, 총선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제22대 총선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모두의 관심과 힘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어주세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월 5일(금) - 6일(토) | 4월 10일(수)

사전투표 | 당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 오전 6시-오후 6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실시됐다. '총선'은 총선거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졌다. 총선을 통해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임기를 수행할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으로 총 300명을 선출한다. 또한 재보궐선거로 구·시·군 의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을 선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적이었다. 2006년 4월 11일생까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다.

총선은 시, 도, 구 단위로 선거구가 구성돼 있다. 각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 배포 및 선거 운동이 진행되며 투표일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됐고, 2024년 3월 21부터 3월 22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사전 투표 기간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6일까지고, 2024년 4월 10일 본 투표가 진행됐다.

지역구 의석수는 지난 총선 대비 1석이 늘어난 254석이며,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난 총선 대비 1석 줄어든 46석이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지난 총선 대비 서울에서 1석이 줄었고,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1석씩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254개의 지역구에서 699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해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총선 지역구 경쟁률은 1985년 12대 총선(2.4대 1) 이후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소선거구제(254석)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46석)로 진행됐다. 소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고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성인은 국가의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에,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자.

## 자신의 권리를 마다하는 청년들... 청년이여, 투표하라!

현대인들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조작성 로봇처럼 살고 있다. 관심 있는 게시물을 클릭할수록 알고리즘은 관련된 것으로만 도배되어, 무지의 분야엔 더욱 무지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알고리즘의 영향 때문인 걸까. 정치에는 아예 눈길 없다.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기들과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투표조차 안 한다고 말하는 동기도 있었다.

서경대 학우들의 정치 관심도는 얼마나 되는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 1층에서 비대면 투표를 진행했다.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냐'는 질문에, 총 298표 중 '많다'가 84표(28.2%), '보통이다'가 84표(28.2%), '적다'가 115표(38.6%), '무효표'가 15표(5%)였다. 또한 '4월 10일에 진행될 제22대 총선 투표를 할 것인냐'는 질문에는 총 273표 중 '투표할 것이다'가 207표(75.8%), '안 할 것이다'가 59표(21.6%), '무효표'가 7표(2.6%) 찾아보게 된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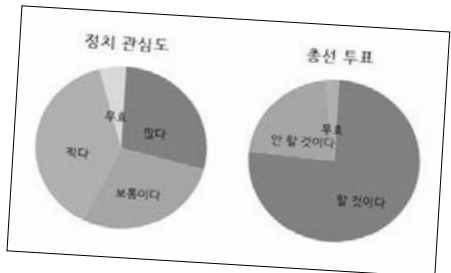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은 비단 서경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발표한 '2022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부터 8월까지 19~34세의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정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40%가 '그다지 관심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러한 2030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정치인들은 유행하는 챗봇을 찍어 SNS에 솟음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공유와 확산이 빨라 흥

근감을 느껴 정치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출마자들의 정책 공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심 유도용 큰 텐트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치가 그저 장난식 놀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었다.

한국 정치의 역사엔 적은 차로 희비가 갈린 사례가 여럿 있다. 가장 최근엔 제20대 대통령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득표를 48.56%,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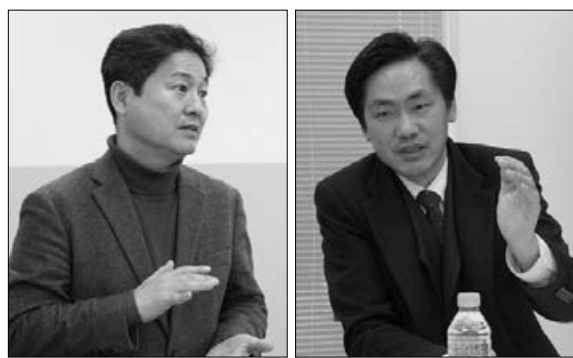
년에 치러진 제16대 총선 때는 경기도 광주시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문학진 후보가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같

이 투표 안 해도 아무 영향 없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투표의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투표권에 대한 오랜 투



성 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이 공휴일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주어진 권리를 왜 마다하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투표하자. 투표는 우

## 청년이 많은 '대학도시' 성북(갑)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다



▲ 김경배 후보 ▲ 이종철 후보

서경대학교가 소재한 성북구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등 대학도시로 유명하다. 특히 성북 갑은 이번 총선 기준, 전체 지역구 254곳 중 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선거구역에는 김음1동·둔암2동·안암동·보문동·정릉1동·정릉2동·정릉3동·정릉4동·성북동·삼선동·동선동이 있다. 총선을 맞이해 서경대신문은 △국민대신문 △성신대신문 △한성대신문과 함께 성북구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배 후보와 대학언론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차주 3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이종철 의원을 만났다. 한편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유승희 전 의원이 성북 갑 출마를 선언했다.

성북구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김경배 후보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강북형단선 사업을 확장하고, 성북구 보문동에 북학문화시설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이종철 후보는 재개발이 정체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며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지됐거나 무산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상업지구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통 인프라 차원에서는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지체되고 있는 GTX와 강북형단선을 실현시키겠다고 답했다.

청년 정치의 비전에 대해 김경배 후보는 당사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들이 당사자가 되어 정치와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의 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 활동을 펼치고 논쟁하는 것이 청년 정치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마시고 민주적으로 활동하길 바란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이종철 후보는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중요하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념을 떠나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년들을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면서 참여시키는 것들이 이뤄져야 하고, 정치 참여를 통해 청년의 문제를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는 모두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하며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 정치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수 총 135,904표 중 더불어민주당 김경배 후보가 74,707표를 얻어 55.68%의 득표율로 성북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이종철 후보는 52,511표로 득표율 39.14%를, 새로운미래 유승희 후보는 6,934표로 득표율 5.16%를 기록했다.

## 제22대 총선 주요 청년 정책, "이전과 달라진 게 뭐죠?"

총선을 앞두고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을 위한 공약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증이 앞섰을 것이다. 정치 무관심과 중도층이 팽배한 청년들의 표심은 특정 정당이 아닌 공약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과연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이 있는지, 정당별 주요 청년 정책을 살펴보자.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청년층의 자가 형성을 돕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GTX 노선의 주요 거점 역세권과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더해 '청년 내 집 마련 1.2.3'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만 19세~34세에서 만 39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힘은 앞서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 상향 조정해 청년 맞춤형 정책 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민생 토론회 개최 세 시간 전 해당 안건을 삭제했다. 지난 2월까지도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공약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기에, '총선용' 정책을 무리하게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3만 원 청년 패스'와 '월 20만 원 대학교 기숙사 5만 호 건설'을 내세워 청년층 공약에 나섰다. '청년 패스'의 도입 목적은 월 3만 원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혜택을 제공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또 미활용 폐교와 지자체 공공시설 및 부지에 약 5만 호의 대학생 공공 기숙사를 설립해, 월 2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의 '청년 패스' 정책이 수도권 청년층만을 겨냥해 비수도권 청년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패스 도입을 위해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 2,9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공통적인 청년 공약은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힘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국가장학금의 성적 최소 기준을 소득분위에 따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은 지난 선거 때도 유사하게 나왔던 공약이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을 반복한 수준이기에 일명 '되풀이 공약' 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 A(24) 씨는 총선 공약에 대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보면 과거에 내놓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도 이러한 '총선용' 공약의 남발 때문일 것이다"는 소신을 전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생률과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암담한 대한민국을 앞으로 수십 년간 이끌 2030 청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역대 선거와 달라진 바 없는 오리무중 공약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 출처: 연합뉴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민주시민인 우리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투표'라는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법안을 제정하

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22대 총선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약 2년이 되는 시점에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할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청년들의 한 표 한 표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4월 10일 선거일을 그저 쉬는 날이라 생각하고 다

른 일정을 잡아놓았는가? 혹은 투표소에 가기 귀찮다며 투표를 안 했는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사회를 바꾸는 신호탄이고, 투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다.

# 늘릴까 말까 고무줄 의대 정원, 고통은 남은 사람들의 몫

지난 2월 1일, 정부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 특히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에 크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의료계가 초강수를 꺼내며 항의하자 정부는 보건 의료재난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때문에 갖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와 함께 현 상황과 더불어 정부와 의료계 사이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피해가 파생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 타 임 라 인

### 2020년 7월~9월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은 20여년간 지속된 바 있다. 2000년, 지금의 3,058명의 정원이 정해진 이후 정부는 계속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0년,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대 신설을 검토하자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응수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권고에도 집단 휴진과 집회를 두어 달 이어간 끝에 여당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종료했다.

### 2024년 2월 초순

2024년 2월 1일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불공정 의료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며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 5,058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발 의사를 표하며 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의사를 전했다. 2월 6일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협은 총파업을 선언했다.

### 2024년 2월 중순

2월 18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휴학이 확인되며 의대생들의 휴학이 시작됐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 주도하에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 대형 병원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1천여 명이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을 선언했다. 2월 20일 대전협은 7가지 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7개 의대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2024년 2월 하순

2월 23일 수련의들도 임용포기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2월 25일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극단적인 행동을 규탄하며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반대 의사를 비치며 의사협회서부터 윤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했다. 2월 26일 정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 2024년 3월

3월 4일 전국 의대 40여 곳 중 정상 개강을 한 대학교는 3곳에 불과했다. 3월 5일 정부는 40여개 대학 모두 증원을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많은 대학 교수들이 급격한 증원에 우려를 표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강경한 정책 추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발 투쟁을 전개했다. 3월 1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0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대학 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단행했다.

### 2024년 4월 초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했다.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의료계에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했다. 4월 4일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대표가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회담 이후 박단 대표가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혀 진전된 바가 없음을 암시했다.

**정부 측** 현재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로 인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약화가 핵심이다. 먼저 필수 의료 기피의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19년간 의대 정원 동결,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개인 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장시간 근무 번아웃'. 둘째, 보상체계와 소송 위주의 해결로 인한 '높은 의사고사 부담'. 셋째, 양 중심 수가체계와 비급여 시장 팽창으로 인한 '불공정한

보상과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다.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불균형도 의료개혁의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지역의료에 대한 역량과 신뢰가 저하되고 병원 인력이 부족해지며 운영난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지역 의료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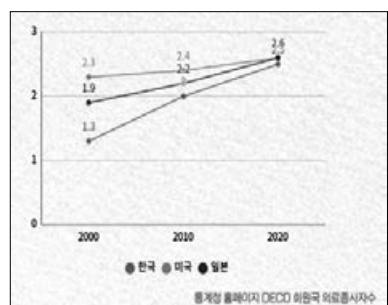
프라 유지에 어려움이 생겼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뛰어난 인프라를 기반으로 높은 신뢰를 얻으면서 지역 환자와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입해 지역 의료 약화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됐다.

**정부 측** 이러한 필수 의료 기피와 지역의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고시했다. 4대 의료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이 중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의사

들이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들어선 것이 현재 의료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며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설명한다.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사의 근무 시간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더 많은 의사가 필요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근무 시간은 2007년 대비 2020년에 12%, 전공의의 근무 시간은 2015년 대비 2022년에 16% 감소했다. 또한 의사 고령화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를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통계가 있

다. 더불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못 미치는 2.1명으로 OECD 평균 대비 약 8만 명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은 수요와 통계 등 근거를 통해 산출된 값이며 불공정 의료생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 출처: 미생모

**의료계**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골자로 반박한다. 의료계는 의대생 2,000명을 하루 아침에 증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겐 교육 관련 인프라 확대를 마무리 짓지도 않은 채 1년 내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가 당혹스럽다.

총북대는 지난 3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정원 배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의대생 정원이 기존의 4배가량 늘어날 처지다. 학교에는 아직 늘어난 인원을 관리할 그 어떠한 설비

도 보강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또한 불확실한 상태다. 타 의과대학들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다. 의대 교수진들은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 시설 및 장비의 부족, 실습 기회 감소, 교수진 부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교수진들은 의과대학 분과 과정에서 필수적인 실습 중 하나인 카테바 실습(시신 해부 실습)의 향후 진행에 큰 우려를 표한다. 모든 인원이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배정대로라면 카테바가 부족해져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국내 의사 수가 타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주장에 대해 의사 측은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00명당 의사 수는 2000년에 1.3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늘어 타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한국은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당 의사 수가 이미 테마 실습(시신 해부 실습)의 향후 진행에 큰 우려를 표한다. 모든 인원이 실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배정대로라면 카테바가 부족해져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 정부 VS 의료계

있다고 꼬집었다. 필수 의료료가 존재하는 병원들은 소속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별로 규정된 가격, 곧 '수가'에 따라 진료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불받는다. 하지만 한 수가 체제로는 시술에 드는 비용이 병원이 얻는 수익보다 크기에 곧 병원의 적자로 이어진다. 의료계는 이러한 적자구조로 병원이 필수 의료 시술 및 해당 전문의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의사가 증가하더라도 필수 의료의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필수 의료 기피의 근본적 원인은 낮게 책정된 의료비에

**정부 측**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지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우며 증원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 증가로 의대생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에 "사실이 아니다"라 말했다. 의대생 교육 질 저하 우려 원인은 '교수 수 부족'과 '의대 입학생들의 점수 하락'이 있다. 지난

해 복지부에서 확인한 결과 교수 수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입학 점수 하락은 이미 1980년대 정원 30%를 추가 선발했지만 해당 학생들이 현재 의사가 되어 좋은 진료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차관은 카테바 부족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기준되는 카테바는 12000구 정도며 실제 의과대학에서 활용되는 카테바는 800구다. 어떤 학

교는 충분히 남아있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현행 제도상 문제로 기증자가 특정 기관에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극복할 수 있다.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 의료 수가' 또한 인상할 계획이며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지역 격차를 고려하고, '공공정책

수가'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 의사 측이 국민 생명을 인질로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출처: 연합뉴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을 위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아픈 이들의 곁을 지켜 주길 바란다.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해부용 시체인 카테바 부족 문제를 의대 간 공유나 해외 수입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에서 이는 기증자의 송고한 뜻을 해치는 터무니없는 해결책이다. B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무연고 시신을 제외한 시신 기증은 보통 본인이나 가족

이 치료받은 특정 병원이나 돌봐 준 의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면서 "시신 기증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의료계는 정부가 전체 의사 수를 늘림으로써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인력이 보충되길 바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해당 발상으로 인해 필수 의료 과들이 낙수효과 전라됐고, 사망감 하나로 필수 및 지역 의료에 몸담고 있던 의사들도 한순간에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 취급을 받게 됐다. 또한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저수가 체계와 사법 리스크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투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로 쏠림 현상만 기증될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한다.

낙수효과가 아닌 족집게 해결법, '직수효과'가 필요하다.



▲ 출처: 인하의과대학

**의료계** 의료계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줘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호소한다. 이들은 현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

과 의사 겁박을 무기로 의료진과 한국 의료 서비스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올바른 의견이 모아질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의사 측과 건설

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 사태를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증원 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에 의대 측 관계자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일말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뜻하는 대화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정부의 모순을 비판한다.

정부 정책의 모든 허점은 현 의료계를 그저 숫자와 통계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를 실현해야 하며, 숫자와 통계만으로 의료계를 분석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보다 내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

## 정부 VS 의료계, 계속되는 줄다리기에 생겨나는 의료 공백 속 빈틈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입장 줄다리기에 생겨나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들의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혈액이 부족해 항상 헌혈을 권장하던 예전과는 달랐던 헌혈계의 상황이 있다. 의사 파업으로 인해 혈액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며 보존 기간이 짧은 혈소판 등이 제때 사용되지 못해 폐기될 우려에 처한 것이다. 혈액연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과 환자 측의 압박으로 간호사들이 강제로의 사 업무를 대신해도, 그 처우나 법적 책임에 문제 소지가 있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 씨는 이번 의료 파업 사태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최대한 서로가 협력하여 업무 분담을 하고 있다"며 "진료 거부 경우는 없다. 다만, 전공의 선생님의 부재로 전공의보다 적은 수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진료를 보기 때문에 단순 봉합 및 경증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기 다른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 두 간호사에게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잠재적 환자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빈틈의 예외는 아니다. 환자들은 현재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의사 파업으로 인해 수술 일정이 밀리며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가족을 잃

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로 72살인 고령의 환자 B 씨는 "이렇게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딘가 아프거나, 크게 다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아프거나 다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문제를 치료받지 못할 것이 무섭다"며 정부와 의료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른 의료진 복귀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갈등으로 인해 결국 제3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단순 2,000명 증원으로는 현재의 필수 의료 기피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이 되는 과정에서 외적던

은 경우도 있었다. 올해로 72살인 고령의 환자 B 씨는 "이렇게 의료 공백이 생겼을 때 내가 어딘가 아프거나, 크게 다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아프거나 다치는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문제를 치료받지 못할 것이 무섭다"며 정부와 의료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빠른 의료진 복귀를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갈등으로 인해 결국 제3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단순 2,000명 증원으로는 현재의 필수 의료 기피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이 되는 과정에서 외적던



▲ 출처: 연합뉴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제네바 선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교육 방법을 써서라도 조건이나 보수가 없이 이 기술을 가르치겠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위험을 당할지라도 본인의 지식과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성숙한 의료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정부는 현재 상황에 더 맞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바라며, 의료인은 사명감을 가지고 어서 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 주간칼럼



## 청년세대를 위한 '다음세대펀드'

주간 방미영 교수

4월이 되면 토머스 스텐스 엘리엇(1888~1965)의 '황무지'의 첫 구절이 생각난다. '4월은 더없이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꽃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써 잡든 뿌리를 뒤흔드노라. 겨울은 차라리 따뜻했노라, 땅각의 눈은 대지를 뒤덮고, 매마른 구근(球根)들로 가냘픈 목숨 이어주었노라. -이하 중략-' . 1922년에 발표된 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20세기 현대 문명에 갇혀 생명의 기운을 잃은 서구인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엇의 시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4월은 '제주 4·3사건', '4·19혁명', '4·16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생명의 상실로 인해 잔인한 달로 기억된다. 4월의 사건들로 인한 상실감은 우리 사회 구성구속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

을 치유하기 위해 세대 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사회적 갈등이 어느 한 가지 방안으로 치유될 수 없지만, 사회 공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는 데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느끼는 불신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청년세대가 느끼는 불신은 고용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 등 주로 경제적 불균형으로 오는 갈등이었다. 한 청년은 집값의 높은 문턱으로 결혼에 관한 생각을 아예 접었다고 하고, 또 다른 청년은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딩크족으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년은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파트타임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할 수 없는 데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노년

층의 복지 문제를 청년층이 떠안을 수 있느냐며 반문하였다. 반면 중장년층은 연금과 노후 대비 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당면한 불안과 갈등의 단초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6%를 차지한다. 국제연합(UN)은 65살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인구 초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경제 성장에 둔화하고, 노인 부양비 상승과 의료 및 복지 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인구 초고령화로 세대 간의 가장 큰 갈등은 경제적 부담이다.

세대 간의 갈등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정착된 사고방식을 중시하는 노년층과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청년세대 간의 경제 활동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관, 결혼관, 직업 선택 등에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는 가치관과 문화적인 취향, 소비 패턴이 다르다.

그러나 무인 가게와 키오스크 등의 등장으로 인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대 간의 신(新) 갈등과 단절을 완화해 보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것이 바로 '다음세대펀드'다. '다음세대펀드'는 경제 활동을 하는 기성세대들이 청년세대들을 위한 경제 및 정신적 지원 활동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청년세대가 젊어질 경제적 부

담감을 상쇄하기 위해 '다음세대펀드'는 물질적·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청년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 활동의 협력을 받아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솔직히 저출산이 20·30세대 탓인가요? 40·50·60 기성세대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탓이 훨씬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회는 우리에게 '일을 안 한다.' '눈이 높다.' 라고 자꾸 비난합니다. 서로 비교하는 문화를 만들고 학벌 순위를 매겨 우릴 바보로 만든 게 대체 누구입니까?"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청년세대의 항변이 '다음세대펀드'를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다음세대펀드'가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여 초고령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의 작은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 | 기자의 눈 |

## '일단 해 보자'는 마음가짐,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기에

지난해 12월 말, 종강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눈앞에 크나큰 과업이 다가왔다. 바로 방학에 6주간 진행되는 보육 실습이다. 아동학과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3학년이 끝난 겨울방학에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나간다. 3년간 학과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상호 작용하고 활동 및 일과를 함께하며 예비 보육교사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다.

'나는 일명 '코로나 학번'이다. 학교에서 듣는 생생한 강의가 아닌 컴퓨터 속 온라인 강의를 듣고 동기들, 교수님들과 소통할 기회도 적어 전공에 대한 애정이 거의 없었다. '어린이집 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내 성격은 정반대인지만 전공을 아예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 흥미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이유로 전공을 바꾸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에 전공을 유지했다.

다행히 대면 전환 이후 전공에 재미를 붙이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한해 일찍 실습을 경험했던 동기들에게 여러 후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실습 이후 전공 분야로의 꿈을 확실히 굳힌 이도 있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을 살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들도 많았다.

실습 첫날, 우려했던 바와 달리 아이들은 처음 보는 나에게 다가가 반갑게 인사해 줬다. 새로운 선생님과 계속 함께 놀고 싶다는 아이들끼리 다투기도 했다. 놀랍게도, 만 3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놀아주는 것이 예상보다 재미있었다. 발달 별 특성과 개인차, 놀이의 연계와 확장, 또래 갈등 등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도 신기했다.

실습생은 영역별 수업도 여러 차

례 진행한다.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하는 발표는 매년 부담스럽고 떨렸지만,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서 하는 수업은 긴장보다 기대가 앞섰다. 진행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주에 진행한 반일 수업이다. 일정 영역에서만 짧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반일 수업은 유아들의 등원부터 낮잠까지 담임교사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이 따랐다.

수업일 기준 하루 주가 설날이었기에, 설날을 대체로 삼아 관련 활동들을 계획했다.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한 활동 자료와 교구를 제작하고, 수업 연습까지 빈틈없이 준비했다. 딱교 교구를 제공하자 아이들은 실제 놀이 시간 내내 딱교로 음식상을 차리며 놀았고, 미술 영역에서 진행한 '복주머니 만들기' 활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만 같던 반일 수업 도중 위기가 찾아왔다. 바깥

놀이 시간에 제기를 이용한 이어달리기 게임을 계획했는데, 규칙이 있는 게임을 아직 어려워하는 유아들이 많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수차례 시범을 보여줬음에도, '텔레이' 개념은 만 3세에게는 이해하기 힘들 듯했다. 서로 뛰어나가려는 아이들이 뒤섞여 강당은 엉망진창이 됐고,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다. "남이 하는 일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반 전제를 이끄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지도교사분께 대한 존경심이 뒤따르는 순간이었다.

우당탕 흘려간 하루가 끝나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주의 실습이 마무리됐다.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새로운 수업을 만들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6주간 치열하게 노력했던 실습의 기억은 훗날 나를 성장시

킬 자양분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러나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아동문학 개발과 관련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하나의 목표가 생기기도 했다.

과거 선부른 판단으로 전공을 포기했다면, 당연하게도 실습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글을 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일단 해 보자'는 마음가짐이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 또한 현재 전공으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니,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자. 안 되면 어떤가? 여태껏 그래왔듯, 이겨내고 또 이겨내면 된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 수습의 눈 |

## 국가가 허락하는 죽음?

우리 인류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향해 간다. 하지만 세 자리 숫자로 길쭉아 늘어난 우리 생의 한 귀퉁이에서는 '죽음 권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2월, 네덜란드의 전 총리 드리스 판 아흐트가 아내와 동반인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삶의 의지를 상실한 이들에게 '인락사'라는 선택지를 내어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과연 한국 사회에서의 '인락사 합법화'는 옳은 판단일까?

가장 넓은 의미의 인락사(이하 적

극적 인락사)는 본래 그 시점에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다. 이에 찬성하는 이들은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은 다르다. 인락사는 우리 사회에서 쉬이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인락사 논쟁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치밀히 해부한 뒤에 매듭지어야 한다.

가장 먼저, 현 사회는 '죽음'마저 철저히 경제적 효용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사회는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인식한다. 인락사 논의의 출발 또한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시대상

과 맞닿아 있다. 과연 국가가 인락사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불치병 환자들의 괴로움에 공명했기 때문일까? 인락사는 어쩌면 고령 사회의 문제를 통제하고자 등장한 교묘한 정책 수단일지도 모른다.

물론 찬성론자들의 논거대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의 말마따나, 인간은 '자유'를 선택받았다. 하지만 그 자유와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 몫이다. 인간은 모두 사회적 존재이기에, 이 책임은 곧 나의 선택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일 국가가 나서서 인락사를 합법화한다면, 그 선택이 미칠 부정적 영향은 볼 보듯 뻔하다. 적극적 인락사가 적법한 것이 되어 시행 가능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한 범위가 점차 넓어진다. 인간

의 생명은 경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락사가 논의되기 이전에 거쳐야 할 많은 단계를 지나오지 못했다. 죽음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편안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과 같은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노년의 심리적 공포나 신체적 어려움을 완화해 줄 다양한

사회적 장치들 또한 아직 부족하다. 그 후야 인락사의 합법화를 논의하는 것이 옳으며, 그 후에도 여전히 인락사의 합법화는 쉬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노년과 죽음을 지나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과 존엄성은 진정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진솔하고 깊이 있는 논의로 국가와 국민이 죽음에 대한 진정한 윤리와 자율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 | 수습의 눈 |

## 추억은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테니까

어지러운 서울 도심 속 이렇게 평화로운 동네가 있을까 싶다. 고층 아파트 단지 뒤 주택들로만 이루어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목길 끝, 붉은 벽돌집들 사이 푸른 식물들로 가득한 집 한 채. 내 어린 시절 추억의 대부분은 이곳에 있다. 바로 바쁜 부모님 대신 주말마다 나와 내 동생을 돌봐주셨던 할머니 덕이다.

할머니께서는 유치원생이었던 어린 나와 동생을 위해 할머니 떡에 갈 때마다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해주셨다. 함께 모종을 골라 옥상과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함께 농사를 짓고, 열매가 열리면 함께 수확해 먹었다. 더운 여름엔 마당

에서 물놀이하고, 시원한 집 안에서 더위를 식혔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자다 눈을 뜬 기억, 동네 또래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놀던 기억, 명절 때마다 사촌동생들과 함께 밤새 놀았던 기억은 내 어린 시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나열하기 힘들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소소한 추억들이 할머니의 바람대로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할머니 떡에 몇 달에 한 번꼴로 찾아가게 됐다. 언제부턴가 마당과 옥상은 행하다. 동네를 시골벽처럼 만들었던 아이들도 다 성장해 골목은 고요하다. 장난감으로 가득했

던 방도 텅 비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할머니 떡에 텔레비전 소리만 흐른다. 내가 찾지 못했던 할머니이지만, 이젠 나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연세가 드셨다. 매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던 동네였는데 어딘가 허전하고 어색한 공간이 됐다.

얼마 전,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길목마다 재개발 추진에 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대규모 재개발이 불가능한 관계로, '모아주택'으로 재개발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모아타운'

이 형성되고, 모아타운을 블록 단위로 모아 아파트 단지처럼 관리한다고 한다. 모아타운마다 다양한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좁은 주차장과 보행로 등을 개선해 낙후된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재개발은 높은 신축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것만 보았던 나로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이라는 단어가 새로웠다.

노후화된 동네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한다는 소식에 동네 주민들은 기뻐하는 눈치다. 사실 낙후된 동네가 개발된다는 것은 동네 가치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어떤 면에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동네의 특성상, 몇십 년간 아끼며

가꿔왔던 집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에, '집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이 동네도 재개발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실제로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운한 감정이 든다. 시간이 흘러 정말 이곳이 새로운 모습으로 탐바꿈해도 나에게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곳으로 기억될 것이다. 재개발되기 전까지 동네 곳곳을 눈과 마음에 더 많이 담아둬야지.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 만/파/식/적

##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해

나는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 학생이다. 전공을 말하면 노어전공이 있느냐는 얘기는 물론이거나 노어전공은 처음 본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다. 교수님들조차 모르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워낙 소수 인원이니 보니 익숙해진 반응이지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면 씁쓸해졌다. 동떨어진 기분과 함께 늘 뒤따라야 하는 설명에 소속감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었지만, 되려 소수라는 생각에 자부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자부심은 사라진 지 오래요, 없던 애교심마저 사라졌다.

교육부에서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모집 인원의 20~25% 이상으로 무전공(전공자유선택) 입학 정원을 채우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 학교는 앞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훨씬 웃도는 비율을 산정했다. 비율을 확대하면 가점이 붙어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지만, 무전공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중도 이탈률은 학교 평균 대비 최대 5배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무전공 입학생의 높은 중도 이탈률로 인해 대학 등급 평가가 하락한다면 이는 대학 재정 지원 축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비율을 늘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 눈앞의 이익에 멀어 대의를 잃는,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꼴이 아닌가? 근시안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무전공 입학생을 비롯한 재학생의 중도 이탈 방지 대책이 있는지도 영 미심쩍다.

'실용 중심'이라는 모토 아래, 대학 근간을 이루는 순수학문을 배제한 채 통폐합을 강행하는 서경대의 행보는 오로지 취업만을 향해 간다. 서경대 학생으로서 졸풍 봐 온 바로는 대학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일개 학위 발급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인기 전공은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하는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 학교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매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역시나 이번에도 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공자유선택제를 시행해도 재학생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커리큘럼을 보장하겠노라고 말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

지난해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노어전공은 소리 소문 없이 폐과됐다. 커리큘럼은 시쳇말로 '개박살' 났다. 학교는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공 강의 개설을 보장한다고 누구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말뿐이었다. 이에 강의 개설 보장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학사일정을 교묘하게 이용해도 어쩔 수 없이 폐과에 동의하게 했다.

당최 언제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도의시할 건가. 분명 학생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소통의 부재로 벌어진 간극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커졌고, 반복되는 불통 행정에 더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송민경 기자

(tilldawn012@skuniv.ac.kr)

## 사설

## 정시 30% 수시 60% '사실상 미달', 대학생 없는 대학교? 대학 혁신이 필요한 오늘

2024학년도 전국 대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전국 4년제 대학 3곳 중 1곳은 정시 모집 결과에서 '사실상 미달'이었으며 수시 전형은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이 '사실상 미달'로 나타났다.

대입 모집 과정에서 수험생은 4년제 대학교에 수시 원서 6번, 정시 원서 3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쟁률이 각각 수시 6대 1, 정시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들을 중복합격자 이탈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이러한 미달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20년 교육부가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5,200명인 반면 대입 가능 자원은 47만 9,378명으로 나타났다. 대입 정원이 대입 지원자보다 적은 '대입 역전 현상'이 2020학년도 최초로 일어났다.

대입 역전 현상은 비수도권 대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43개 비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때문엔 '뿔뿔이 피는' 모습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대학교 '뿔뿔이' 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는 정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 충격을 불러 일으키며 지방 대학 폐지 위기를 가져온다. 지역 대학의 붕괴는 해당 지역의 상권과 직결되기에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강제한다. 결국 대한민국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밀화되는 '서울 공화국 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대입 역전 현상, 지역 소멸과 관련된 대학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문민정부가 시행한 5.31 교육 개혁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 설립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대학 설립의 허들을 낮추고 대학의 양적 팽창을 야기한 것을 문제로 꼽는다. 이에 따라 대학의 양은 많아졌지만 교육의 질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일부 수습 미달 대학들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식이 저하되고 지역에서 퇴출당하며 결국 수험생들은 줄 세우기 대학 서열에 의존하여 수도권과 지방거점대학을 목표로 한다. 학문적 성취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이 줄어들어 따라 대학생과 수험생 또한 대학을 '취업의 발판'으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고등교육법 제28조(목적)에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과연 우리는 대학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정부와 대학은 거시적인 목표를 갖고 학생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대학 졸업 목적에 맞는 대학 혁신이 적극 기여할 것을 대학 공동체에 주문한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오늘의 책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 명심보감 추적



▲ 출처 : 왓차피디아

“성인”은 모든 인간이 영원하고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간상이다. 이를 위해 역사를 거쳐 수많은 지성인들은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플라톤의 철인 사상, 유교의 군자, 체체가 주창한 초인 등등. 어쩌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성인에 대한 갈망을 가득 머금은 고뇌일지도 모른다. 다만,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우리 역사는 성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젊은 시절 청렴했으나 타락한 사람, 노욕에 사로잡혀 과거를 답습하는 사람, 끝끝내 자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의 역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성인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삶의 기본적인 덕목들, 어쩌면 7살 배기 아이도 깨우쳤을 삶의 기본적인 자세를 한치의 거짓 없이 매일 지키면 된다. 다만 ‘매일’이라는 전제가 붙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성인이 되기 실패하고 좌절한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지 자가 어불성설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신이 불완전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들이 남긴 가르침과 자연스레 익혀지는 덕목들을 지키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된다고 생각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은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했던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 언행, 기록을 엮어놓은 책이다. 삶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찰,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제시하고 옳은 것을 추구했던 선인들의 고뇌가 담겨 있다.

홍익출판사에서 펴낸 명심보감은 명확한 번역, 세세한 설명이 깃들여져 편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필자는 명심보감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깨우치는 한편 이미 몸에 배어 있는 덕목들을 다시 한

번 되새김질하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전승된 책이기에 명심보감은 읽다 보면 알고 있거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임금과 신하의 충을 이야기하는데 21 세기의 민주 시민이 공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성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어투의 문장들이 즐비한 것에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고로 책을 읽고 소화하는데 있어 시대적 어폐를 감안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고의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만민에게 좋은 사람과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방법에 있어 과거와 현재의 간극은 좁다. 고로 명심보감의 내용은 대부분 우리네 삶과 가까이 마주하고 있다. 마땅히 눈으로 되짚으며 살펴보고 마음속에 다시 새길 가치가 충분하다. 지루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시간 낭비가 될 수 없다. 마음을 비추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무의식적 행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오늘의 장소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사색을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당최 도서관인지 카페인지 궁금증을 잔뜩 불러 모으며 요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SeMA AA, 이하 미술아카이브)다. 미술아

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서, 국공립 최초 아카이브 전문 미술관이다.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카이브 (archive)’란 영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 기록을 선별해 보관하는 장소,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미술아카이브는 한국 현대미술의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선별해 수집·보존·연구하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전시, 교육, 행사를 개최한다. 소장 자료는 자료를 기증한 예술가 또는 주제에 따라 컬렉션으로 묶였다. 컬렉션에서 사진, 문서, 출판물, 메모, 작가 노트, 편지, 오디오, 비디오, 에스키스(밀그림)를 살펴볼 수 있다.

미술아카이브는 모음동, 배움동, 나눔동으로 나뉜다. 모음동은 보존 및 연구,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에서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3층 리서치룸에서 현대미술 연구의 기초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함께 배우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인 배움동 1층 넓은 계단에서는 세미나 강연이, 2층 모두의 교실에서는

교육과 배움 활동이 이뤄진다. 나눔동은 1층 카페, 2층 다목적홀로 조성됐다. 다목적 홀에서는 학술 행사, 공연, 스크리닝 등 공공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변 지형과 어우러진 공간은 관람객의 경험을 실내에서만 한정 짓지 않고 더 멀리,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탁 트인 조망으로 보이는 북한산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공간은 둘러보기만 해도 넉넉하다. 미술아카이브 곳곳에서 잠시나마 사색에 잠겨도 보자. 무엇이든 몰입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다.

우리 학교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 수업이 끝난 뒤 가기에 좋다. 승덕초 앞 정류장에서 163번 버스타 7211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누구든 미술아카이브에 방문하게 되면 꼭 다시 오리라 다짐하게 될 것이다. 바지런히 움직이자. 머무르는 동안 분명 시간이 금세 흐를 테니 말이다.

송민경 기자  
(lildawn012@skuniv.ac.kr)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로구 평창문화로 101  
· 운영시간 : 화-금 : 오전 10시~오후 8시 / 마지막 수요일 : 오전 10시~오후 10시  
토/일/공휴일 / 하절기(3-10월) : 오전 10시~오후 7시

오늘의 음악

프랑스 음악과의 랑데부

이번 '오늘의 음악' 코너에서는 프랑스 음악에 주목했다. '상상'과 '프렌치 팝'을 통해 프랑스 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자.



♪ 〈Les feuilles mortes (고엽)〉  
- Yves Montand

“그러나 삶은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네요  
아주 부드럽게, 소리도 없이  
그리고 바다는 모래 위를 쓸어가요  
헤어진 연인들의 발자국을”

“제가 이 곡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상상 중 하나입니다. 가사가 참 시적이고 아름다워요. 오래된 노래지만, 세계적인 성공을 거

둔 노래입니다.” - 마리즈 부르맹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교수)

‘상상’은 영미 문화가 혼합되기 이전의 프랑스 가요들을 칭한다. 일부 상상들은 시(詩)에 멜로디를 붙여 탄생해 보다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짙은 가을날, 바다에 쌓였다가 금세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삶의 흐름과 그 속의 이별을 떠올리는 곡, ‘고엽’ 역시 어느 시인의 시를 노랫말로 한다. 쓸쓸하고도 부드러운 선율 위, 이브 몽탕의 목소리는 섬세한 현악기 연주처럼 느껴져 몹시 애상적이다.



♪ 〈En nuit (밤에)〉  
- Videoclub

“의심 가득한 네 눈을 감기고 싶어  
네가 그리워하는 걸 떨쳐내고 싶어  
고개를 들고 용감해지자  
둘이라면, 우린 권태보다 강하잖아”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팝·록 문화 등이 유입되며 ‘프렌치 팝’이 시작됐다. ‘Videoclub’은 프랑스의 실제 고풍한 생 키프이 결성한 젊은 음악 그룹이다. 밤을 뜻하는 ‘en nuit’이 권태를 뜻하는

‘ennui’와 발음이 같다는 점을 이용한 이 곡은, 둘 사이에 찾아온 ‘권태’라는 밤을 달래는 과정을 노래한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어두운 밤을 ‘백야’로 환히 밝혀낸다.

비록 두 사람의 결별로 그룹은 해체됐지만,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프랑스 청춘의 경쾌하고 젊은 에너지를 전한다. 각자 멜로디를 읊조리며 시작해 멋진 하모니로 곡을 끝맺는 두 사람의 목소리엔 무엇인지 모를 특별한 힘이 숨어 있다. 그 힘은 아마도 사랑과 젊음이 아닐까.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기발한 상상력이 팡팡 터지는 - 타나카 타츠야: 미니어처 라이프 · 미타테 마인드



‘미타테(Mitate)’란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유하는 것,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해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미니어처 사진가 타나카 타츠야는 ‘미타테 마인드’를 주제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활용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전시회는 총 일곱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에 걸맞은 52점의 실물 미니어처, 기존 작품을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과 영상 등 200여 점 이상의 작품들로 꽂 채워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끊임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중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관람한 네 가지 작품을 소개하겠다.

가장 먼저, ‘Home’ 섹션의 ‘일상의 피로를 풀장~’이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화장실 속 세면대를 풍장으로 ‘미타테’하여, 물이 차오르는 세면대 속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유롭게 수영하며 피로를 푸는 모습을 보여준다. 칫솔은 사위기가, 핸드워시는 다이빙대가, 넓혀진 칩은 식당가가 되어 역

할의 변화를 시도한 것도 매우 창의적이다. 두 번째, ‘Form’ 섹션의 ‘스마트하고 스무~한 여행 되세요~’는 보자마자 감탄을 내뿜게 한 작품이다. 10분 단위로 설정된 스마트폰 알람이 보이는 화면을 눌러 비행기 좌석 옆에 배치해 온·오프 전환 버튼이 마치 비행기 창문처럼 보이게 했다. 매일 아침 지갑처럼 보는 스마트폰 알람 화면과 여행을 연결해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탄생시킨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세 번째 작품인 ‘Color’ 섹션의 ‘니트 (neat) 핑아에서 미트(meet)는 노란 색깔의 니트 한가운데에 농사를 짓는 미니어처들을 세워, 마치 황금빛 밭에서 가족들이 재회하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다. 언어유희

를 사용한 재치 있는 제목도 인상적인데, ‘니트’의 발음과 유사한 일본어 ‘닛토’는 입꼬리가 씩 올라가며 웃는 의성어를 뜻한다고 한다. 작품 속 가족들이 서로를 해맑은 웃음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World’ 섹션의 ‘전쟁 반대’라는 제목의 작품은 기존 작품들과 다르게 작가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작가의 분명한 신념을 반영해 제작했다고 한다. 연필 로켓탄이 종이 아파트를 뚫어 주변에 종이가 흩어져 있고, 파괴된 아파트 속에는 침대와 책상 등 평화로운 일상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망가져 있다. 무력으로 일상을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소망하는 작가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수백 개의 재치있는 작품들을 눈에 담으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을 하나하나 읽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했다. 따라서 최소 1시간 이상의 여유 있는 관람 시간을 두고 가길 권한다. 뜨거운 인기를 구사하는 ‘핫플’ 전시인 만큼 대가 줄이 길어 평일이나 주말 오전에 관람하는 것이 좋다. 지루한 일상 속 색다른 재미가 필요하다면, 본 전시를 관람해보는 것은 어떨까? 익숙한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 일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미타테’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 전시기간 : 2024.03.02 ~ 2024.06.10
- 관람시간 : 월-일 오전 11시 ~ 오후 9시 (입장마감 : 오후 8시)
- 전시장소 : MPX Gallery (여의도 IFC층 L3층)
- 관람비용 : 성인 18,000원, 18세 미만 10,000원, 36개월 미만 무료

오늘의 드라마

나를 이루는 감정들 - 유미의 세포들 (2021)



▲ 출처 : tving

내 감정을 구성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기쁨, 슬픔, 배고픔 등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누군가 제어하고

있다면 어떨까?

2021년 9월 tvn에서 방영한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은 네이버 웹툰에서 2015년 연재된 이동진 작가의 동명 웹툰 〈유미의 세포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이 드라마는 모두에게 다양한 감정 세포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가진다. 극 중 등장인물의 내밀한 감정이 각각의 세포 캐릭터들로 표현된다. 이성적,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각각 이성 세포, 감성 세포라 불리는 세포들의 힘이 강하고, 프라임 세포라 불리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도 있다. 이들은 주인공 유미 안의 ‘세포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며 유미의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한다.

평범한 직장인 유미가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자유로우면서도 로봇 같은 게임 개발자 ‘구웅’을 만나며 드라마는 시작된다. 유미와 구웅의 로맨스, 직장에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주인공의 현실적인 연애, 사회생활, 사랑, 우정, 성장 등 유미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경험해 봤을 법한 이

야기가 담겨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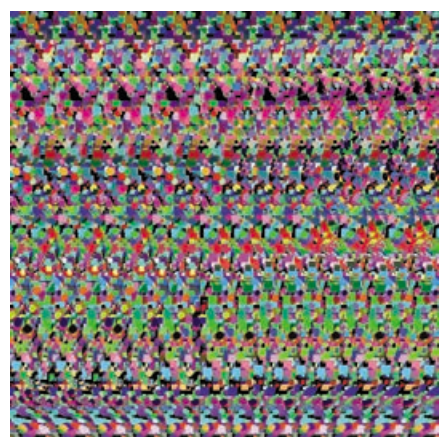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는 국내 최초로 3D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결합해 배우들과 세포 캐릭터들을 효과적으로 연출했다는 점이다. 세포들의 ‘감정’이 중점이 되는 드라마에서 각각의 세포는 캐릭터화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라 섬세한 감정을 전달해 드라마의 몰입을 도왔다. 또한 유미의 로맨스를 돕는 세포들의 이야기가 매력적이다. 평범한 감정 세포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탐정 세포, 출출 세포, 응급 세포, 패션 세포 등 다양한 세포들이 드라마에 재미를 더한다. 어쩌면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전개지만, 세포들의 좌충우돌 이야기 덕에 전혀 평범하지 않다.

“나는 어떤 감정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귀여운 상상을 하게 해주는 드라마다. 잔잔한 힐링이 필요할 때, 함께 울고 웃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추천한다.

이나연 수습기자  
(yx0nd1@skuniv.ac.kr)

오늘의 호기심

패턴 속의 비밀을 찾아라 - 우리 눈의 과학, 오토스테레오그램



‘오토스테레오그램’을 아는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매직아이’는 아는가? 이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매직아이라고 알고 있는 그림들의 진짜 명칭은 오토스테레오그램이다. 입체라는 뜻의 ‘스테레오(sterео)’와 도형, 문서라는 뜻의 ‘그램(gram)’의 합성어다. 오토스테레오그램을 모아 처음 출간한 책의 제목이 〈매직아이〉로, ‘상품의 보통명사화’의 대

표적 예시 중 하나다. 오토스테레오그램은 1990년대 유행했던 입체화 영상 그림이다. 필자는 어릴 적 〈단단한 과학-생각해 보세요〉라는 책에서 처음 오토스테레오그램을 접했다. 복잡한 패턴의 그림인 줄 알았으나 집중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입체적인 모양이 튀어나오는 게 신기해서 하루 종일 책에 코를 박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눈을 그림에 가까이 대고, 사시가 될 정도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토스테레오그램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오히려 굳어진 눈의 근육을 풀어주어 눈의 피로회복과 뇌 활성화,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침부된 물체를 바라볼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맺히는 상이 다르다. 이 상들의 차이를 ‘양안시차’라 부른다. 양안시차를 이용해 양쪽 눈의 상에 일그러짐을 일으키면 뇌는 평면인 그림을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인식한다. 양안시차를 가장 쉽게 느껴보려면 왼쪽 눈을 감고 눈앞의 물체를 바라보자. 다음 오른쪽 눈을 감고 다시 그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오토스테레오그램을 그냥 책 읽듯 바라보면 그 속에 숨겨진 그림을 볼 수 없다. 코가 그림에 닿을 정도로 눈을 가까이한 뒤, 어느 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그림과 멀어지면 초점의 주변에서부터 입체감이 살아나게 된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오토스테레오그램을 봐도 숨겨진 그림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

눈을 그림에 가까이 대고, 사시가 될 정도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토스테레오그램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오히려 굳어진 눈의 근육을 풀어주어 눈의 피로회복과 뇌 활성화, 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침부된 물체를 바라볼 때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맺히는 상이 다르다. 이 상들의 차이를 ‘양안시차’라 부른다. 양안시차를 이용해 양쪽 눈의 상에 일그러짐을 일으키면 뇌는 평면인 그림을 입체감 있는 그림으로 인식한다. 양안시차를 가장 쉽게 느껴보려면 왼쪽 눈을 감고 눈앞의 물체를 바라보자. 다음 오른쪽 눈을 감고 다시 그 물체를 바라보면 물체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